

이제는 음료도 건강하게! 베트남 내 건강과 맛을 챙긴 주스 인기

2020년 베트남 HOT 트렌드 키워드는 '건강', 'ABC 주스' 인기



출처 : Google, ABC Juice

코로나19 발병, 식중독 사례 발생, 인구 증가 및 맞벌이 가족 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건강식품을 찾는 베트남 현지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7월로 접어들면서 습도 60~70%, 온도 30~35℃의 습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 베트남 내의 재래시장과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사과, 비트, 당근을 적정 비율로 섞어 만든 'ABC

주스'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의 앞글자를 딴 'ABC 주스'는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도 신체 해독 주스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오토바이로 인해 운동량이 부족한 베트남인들에게 효과적인 주스라고 널리 알려지고 있다.

'20년 현재 베트남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ABC 주스'는 남비엠티 음료업체(Vinut)에서 500ml, 1L 형태로 생산하여 페이스북, 자사 사이트(Vinut.com.vn) 및 주요 베트남 온라인 플랫폼(Lazada, Tiki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시중판매액은 1L/120,000VND(6천 원) 수준이다. 남비엠티 음료업체(Vinut) 관계자에 따르면 "월 판매량(20년 기준)은 20피트 컨테이너 1대(400~450박스) 수준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량이 약 120%가량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다.

'ABC 주스'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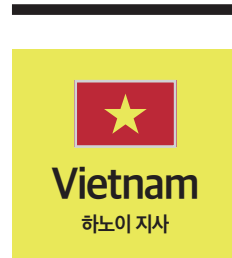
'ABC 주스'의 A인 사과(Apple)는 식이 섬유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식이섬유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방지 및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추가로 변비개선 및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도 지니고 있다.

'ABC 주스'의 B인 비트(Beet)는 빨간 무라고도 불리며 21세기 슈퍼푸드로 꼽히는 과일이기도 하다. ITC Trade Map('19년 기준)에 따르면 베트남의 주요 수출 농식품 중 하나인 비트가 말레이시아(37%, 3백만 불), 한국(33%, 2.8백만 불), 싱가포르(14%, 1.1백만 불) 등의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의 경우 지방 억제 호르몬인 아디포넥틴(Adiponectin) 분비를 촉진해 내장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암 예방과 염증 완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원활한 생리작용을 돕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ABC 주스'의 C인 당근(Carrot)은 식재료로써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료이기도 하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Beta-Carotene)이 들어있어 눈의 피로를 제거해 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단, 비트의 경우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트의 옥살산이라는 성분은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장 결석을 앓고 있다면 비트 양을 줄여 섭취해야 한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비트의 양을 레시피보다 적게 넣어서 혈압과 신장에 무리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Key Point

6월 이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현지 음료 전문점(밀크티, 커피 등)에서의 음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병 후 시장 및 유통매장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과채류를 활용하여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료류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도 증가함에 따라 'ABC 주스'처럼 사과, 포도, 배, 딸기, 단감(홍시) 등을 활용, 독특하며 건강한 과일주스 등을 개발하여 생과일주스 전문점, 카페 또는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홍보가 이뤄진다면 한국산 과실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